

##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김미애

### 『학력사항』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 동아대학교 법대 졸업

### 『경력사항』

- 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부산광역시당 해운대구울)
-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구울 당협위원장
-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 법무법인 한울 대표 변호사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 위원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 및 아동 법률지원변호사단
-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무료법률 상담위원
- 김미애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2002년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I. 들어가면서

스물 아홉라는 나이에 뒤늦게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남은 삶을 보람되게 살아야 합니까?”라며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러서 난 지금 여기, 사법연수원에 와 있다.

지금도 가끔씩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 사법연수원 생활이 삭막하거나 너무 힘이 들어 지칠 때 창너머로 보이는 푸르른 나무들을 바라보며 “어! 내가 여기 있네.”라고 혼자 조용히 미소지으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7년 전만해도 나의 이런 모습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난 여기 예비법조인으로 분명히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분, 나의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

개인적으로 『考試界』는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책이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고시공부를 하며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 혹시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선진들은 없었을까? 라는 기대로 합격기를 찾아 읽으며 많은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기를

써 달라는 요청에 선뜻 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나의 지난 삶이 그리 자랑스럽지도 대단하지도, 유쾌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글로써 나타내는 일은 나의 지난 아픔을 되살리는 것이어서 싫어서였다. 그러나, 해여 지금도 나처럼 괴롭고 외로운 가운데서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들에게 조금의 용기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의 지난 삶을 나눌까 한다.

아무쪼록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나름대로 확고부동한 자신의 결단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험생활과 합격 이후의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합격기라고 해서 내가 어떤 책을 얼마나 어떻게 봤다는 식의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내가 사법시험을 공부하기까지 어떤 일을 했고, 왜 사법시험을 공부했는지, 어떻게 수험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 II. 바다, 그리고 어머니...

내 고향은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하정1리라는 작은 어촌마을이다. 내 어린시절은 여느 시골아이와 마찬가지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끝이었고, 방과 후이면 집안일을 거들거나 산으로 바다로 놀러다니는 것이 전부였다. 지금도 내 고향 바다가 눈에 선하다. 바닷속 장면까지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선박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를 홀로 떠안으시고 2남 3女の 자식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바다에서 일을 하셨다. 내 기억속에는 내 어머니께서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만큼 내 어머니는 강인하셨고 자식들을 위한 수고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신 것 같다.

가난 속에서도 나름대로 평온했고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내 나이 열두 살이던 해 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가셔는데, 일주일이나 지난 후 아버지 혼자서만 집으로 돌아오셔서 어머니 옷가지들을 챙겨서 오빠랑 잘 지내고 있으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다시 병원으로 가셨다. 나는 그 때 눈앞이 캄캄했다. “아! 이제 어찌나!” 엄마가 무슨 큰 병에 걸리셨나 보다. 내가 할 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집 앞마당에다 상을 펴놓고 그 위에 물 한 그릇 떠놓고는 내가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때까지 단지 엄마가 절에 다니신다는 이유로 핍박하던 예수님, 엄마가 믿던 부처님, 용왕님, 산신령님 등 내가 아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당에 무릎 꿇고 안자아 간절히 기도드렸다. “제발 우리 엄마 큰 병 아니게 해 주시고 빨리 나아서 집에 돌아오게 해 주세요.”라고 한없이... 그러나 이런 나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엄마는 약 3개월 후 핏기 하나 없는 몸으로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 오셨다.

그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하셨다. 그 후로 나는 오직 어머니 병 낫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예수님 우리 엄마 낫게 해 주세여.”라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드렸다.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금요일구약예배,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인근 약 7~8개 교회의 부흥회를 빠지지 않고 어머니를 때로는 리어카에 태우고 모시고 다녔다.

난 항상 걷지도 앉지도 못하여서 마룻바닥

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 옆자리에 안자아서... 매일 하혈을 하셔서 몸에 핏기하나 없이 누워 계시는 어머니는 암말기 환자의 그 극심한 고통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다. 엄마가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난 자동으로 일어나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어머니는 감쪽같이 편안히 주무시곤 하셨다. 당시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았었다.

당시 어머니의 병원비, 수혈비용 등으로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고 그래서 내가 집안 일을 하며 학교를 다녔기에 공부할 시간, 참고서 살 돈도 없어서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내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의 그림이 있었다. 먼 훗날 내가 훌륭한 모습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 현실화 되어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인터뷰할 때 그 기자에게 그대로 간증한 적이 있었으니 그야말로 열두 살 때 꾸는 꿈이 서른네 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동안 어머니는 정말 거짓말 같이 나오신 것 같았으나, 추석 때 제사 준비를 하신 후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중학교 2학년 때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후 난 엄마 따라 죽겠다는 어머니 생전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어머니를 땅속에 묻는 순간에 내 머리를 지배했음에 묻는 순간에 내 머리를 지배했음에 스스로 경악했고, 그런 현실이 너무나 서글퍼서 하염없이 울었었다.

### Ⅲ. 어머니와의 이별, 방황의 나날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집안에 우환

이 갑자기 몰아 닥쳤다. 빛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포항여고에 입학금을 겨우 내고 학교를 다녀오나 차비가 없어서 아침마다 남의 집에 차비 빌리러 다니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고, 학교도 매일 지각할 수 밖에 없었고,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만 있었지 “머릿속은 내일은 또 어떻게 학교를 오나?” 라는 걱정으로 공부는 뒷전인 날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가난한 내게 차비를 빌려주지 않았고, 유일하게 토요일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께서 아무 말없이 나를 화단에 앉히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는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떨어져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 돈으로 일주일 버티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이 오래 갈 수 없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다. 반 학우들의 ‘거짓된 베품’(이 건 순전히 그 당시 내 생각이다. 불우이웃돕기 시즌에 나를 교실 밖에 나가 있으리라고 하고는 성금을 모아서 나에게 주었다. 그러나, 난 평소에 참고서도 없어 숙제를 못해 갈 때, 도시락을 못 싸가서 외로울 때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야말로 사람 냄새 나는 정이 그리웠지 물질적인 궁핍은 부차적인 것이었기에...)이 내 자존심을 상치낸 사건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고졸하고 대학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친구 따라 도망치듯 그 끔찍한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며 점심을 굶고, 참고서가 없어서 숙제도 못해가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기분으로 암흑 속에서 살다가 내 마음 위로해 주는 친구들과 지내니 그냥 마음 편하고 좋았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해이가 생기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차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나이 열일곱 때 나의 방황이 시작되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좋아하는데 그 요셉은 열일곱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나, 오르지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서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으나 나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

그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물질만능주의 사고로 생활했다. 놀기 좋아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며 오로지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이것저것 해가며 돈을 모았고, 스물넷에 조그만 초밥집을 하면서 수입도 꽤 괜찮았다.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 자면서 주방일, 시장보기, 써빙하는 일을 모두 해 가면서도 서른 즈음에 호텔경영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었다.

그러나, 문득문득 밀려드는 공허감, 어릴 때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내가 어찌다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과 돌이켜 보면 생활은 힘들어도 얼마만큼 같이 교회다니는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는데라는 생각만 했었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매일 큰 돈을 만지면서도 밀려드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어서 차를 몰고 여기저기 정처없이 돌아다니길 잘했다. 그 즈음 어느 날 부산 부전시장에 갔다가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명륜동 지하도로 내려가는 순간 양 벽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듯한 환상을 보고 “아! 이러다가 죽으면 나는 어찌지.”하는 생각과 함께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잠시하고는 또 말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울면서 손들고 “주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하고 눈을 떠 보니 주일날 오존 10시 썸이었다. 그래서 무작정 누

군가에 들은 대로 수영로교회로 차를 몰고 갔고, 그 날로부터 다시 주심의 품에 안기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두움에 갇혀 살게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빛으로 끌어 내 주셨다.

#### IV. 제2의 인생, 어릴 때 꿈을 다시 회복하고...

1994년 11월 31일 주일, 그 날은 나의 또 다른 생일이다. 나는 그 날 어두움의 구렁텅이에서 주님의 극진한 사랑의 힘으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모든 예배시간에 다 참석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가게 일 때문에 저녁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다.

그러던 중 1995년 1월 1일 신년기도회 때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가게 빨리 정리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진 것의 십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가게가 정리되지 않아서 거의 매일 밤 가게를 마치고 교회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가게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 때 욕기 23: 8~10 말씀(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5월에 가게가 정리되고, 약속대로 325만원을 하나님께 십일조로 드렸다.

그 후, 앞으로 남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살까를 고민하며 거의 매일을 울면서 기도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 당시는 정말로 두 번 다시는 내 멋대로 살아서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고 싶진 않았기에 그렇게 간절했던 것 같았다. 어쨌든 배움에 대한 恨은 남아 있어서 공부를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공부를 할까를 “첫째 내가 좋아하는 일, 둘째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셋째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일, 곧 사회에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했다. 그 해는 수능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있지 않아서 우선은 놀 수 없어서 매일 교회 가는 길에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삼성생명에 직접 찾아가서 부침설계사를 몇 달하며 전도도 하면서 보내자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나날을 보냈다. 그 때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보험가입도 권유하며 나름대로 보람도 되고 수입도 괜찮았다. 그리고 1996년 3월부터 학원에 등록하려고 했으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一讀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능학원은 한 달 연기하고 성경 1회독을 먼저 하고 나서 4월부터 10년 넘게 손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그 해 여름에 일본 단기선교를 다녀 오고 수능시험을 보고 동아대학교 법대에 드디어 합격했다. 나의 수험기간 동안은 잠언 4장 23절(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

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과 시편 23편이 큰 힘이 되었다.

스물아홉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대학이라니 그것도 법대라니. 주위의 만류와 비아냥거림도 많았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들어갈 때 입학금 내는 걸로 학비는 더 이상 내지 않게 해 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기에 정말로 학비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학비 뿐만 아니라 ‘지독료’라는 고시반에 들어가서 먹고 자는 것까지 학교에서 제공도록 해 주셔서 정말 매일 매일 감격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 V. 성경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 드디어 사법시험 합격

비록 남들보다는 거의 10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난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생활에 임했다. 역지가 아닌 감격의 시간들이었으므로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에만 하루 종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도서관창가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기조하고 성경을 읽고 난 후 공부하면 정말 공부는 저절로 되는 듯 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도 감격해서 시시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1학년 때 곽윤직 민법시리즈를 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냥 책을 읽는게 좋아서 모래알 같은 글들을 무작정 읽었다. 그 시절은 이해하기 보다는 공부하는 체질로 다듬어 가는 순간이었다. 난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난 시작도 늦었고 기본도 뒤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으로 노력해야 해.”라며 도서관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맨 나중에 나온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난 수업시간은 혼자 공부했던 것을 되새김질하고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으로 활용했는데, 낮에는 수험공부에 야간에는 수업에 임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 강의에 집중했고, 시간 시간이 무척이나 신났다. 남들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느냐고 고시생은 학부성적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했으나, 내 생각에는 어차피 같은 공부인데 왜 별개로 취급해야하지? 라며 개의치 않고 수업에도 열중했다. 그래서 3학년 때 까지는 학부성적도 과수석이었으나, 4학년 때 1차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2차시험을 공부하느라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바람에 성적이 떨어져서 결국은 차석으로 졸업하였다. 그 또한 감사한 일이었다.

3학년 때 꼭 1차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커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여섯 번이나 교체하는 실수를 하다 보니 아쉽게 떨어지고 말았다. 2학기는 휴학하고 다음 해에 1차시험을 세 번만에 합격하고, 드디어 고대하던 2002년에 2차시험의 수험생활을 위해 서울 신림동에 입성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던 신림동 생활이 내 수험시간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줄이야... 몸은 지칠대로 지쳐서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삭막한 주변의 환경, 끝없는 공부량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난 스테디는 하지 않고, 학원을 꼬박꼬박 다니며, 주로 혼자서 공부했는데 항상 테이프를 들으며 다녔고, 잠자기 전에도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날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꿈나라로 갔었다.

첫 해는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끝까지 되는 대로 쓰면 몇 점이나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임했으나, 역시 점수는 형편이 없었고 “남은 한 해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기회인 2002년 6월, 평소에 긴장하면 손이 떨려서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는데 2차시험 보는 4일 동안 매일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나를 꼭 안고 계심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내가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수능기간까지 합해서 약 6년 만에 합격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라도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 계셨다면 오늘의 저는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하는 모교 동아대학교 및 교수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가족들의 격려와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VI. 나오면서

부족한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이런 제 모습은 불과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대 교수님들, 같이 공부한 지독료, 범우회 선·후배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산책하고 친구가 되어준 경수, 상수, 선웅, 지혜, 미라, 정은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도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는 선·후배님들 모두가 꼭 그 꿈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삶에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세상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